

“별교 람사르습지 근처에 산업폐기물 웬말이나”

200만t 규모 폐기물매립장 추진 보성군의회·주민 반발 확산 60개 시민단체 등 대책위 구성

보성 별교 람사르습지 인근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돼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보성군의회와 별교 지정폐기물 설치반대 대책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성군 별교읍 추동리 백이산 인근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 등을 뜻한다.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위해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며, 관리나 감시 등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

별교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축구장 5개 반 크기의 3만8500㎡ 부지에 매립량은 200만t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하루 처리량은 15t 화물차 37대를 압축해 매립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현재 에어돔 형태로 매립장 조성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업자가 올해 초 매립장 건립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주민과 보성군, 보성군의회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별교읍 71개 마을과 인근 순천시 35개 마을, 별교읍민회, 별교이장단협의회 등 6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등은 지난 3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매립장 예정 부지 인근에 광주·전남 식수원인 주암호의 물줄기가 있고, 순천 낙안읍성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청정갯벌이 있어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별교 백이산에 지정폐기

물 매립장을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이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같다”며 “매립장 건립 반대를 위해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의회도 지난달 14일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반대 성명을 내고 “폐기물 중에도 가장 나쁜 것을 별교로 가져오면서 지역발전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며 매립장 조성사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성군은 지정폐기물 사업의 경우 허가권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라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아직 행정기관에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내지는 않았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별교=김윤성 기자 kim0686@kwangju.co.kr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의회가 별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곡성 석곡, 면단위 첫 ‘도시재생 뉴딜’ 선정

4년 136억원 투입...고속도로로 쇠퇴한 지역 옛 모습 복원

곡성군 석곡면이 면 단위 최초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석곡면 지역이 202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추가돼 사업비 136억 원을 확보했다.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석곡에서 살면 돼지 Reborn 1973’이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진행된다. 국비 76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48억원 등 총 136억이 투입되며 석곡면 석곡리와 능파리 일원이

다.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쇠퇴한 지역을 1973년의 모습으로 재생한다. ‘정돈된 돌실마을’을 테마로 집 수리 지원, 목수 학교 운영, 포켓공원, 생활SOC 확충 사업이 진행된다. 또 ‘약자지결한 돌실장터’를 주제로 상인대학, 흑돼지 센터 조성, 흑돼지 상품개발 등이 추진되며 ‘돌실어울림 센터’를 통해 센터 건립, 현장지원센터 운영, 대항강 산책로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곡성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민관학 소통체계를 구축했으며 31차례 재생대학과 40번의 주민회의, 3번의 선진지 답사를 진행했다. 곡성군은 이번 사업과 별개로 12억원을 투입해 석곡면 소규모 재생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석곡면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면 단위 지역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스스로 만드는 지역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보성군 ‘티 블랜더 양성, 취·창업지원교육’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 정착 유도

보성군은 청년을 대상으로 티 블랜더 양성교육과 티 블랜더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티 블랜더 양성교육은 보성농차를 테마로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보성 다(茶)방 배움캠퍼스

에서 진행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교교육장 교육실을 리모델링해 실습실로 운영한다. 교육 시간은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과 다문화여성, 청년 등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야간반으로 주2회 운영한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기여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이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로 청년을 대상으로 티 블랜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례에 귀농·귀촌민 주택 30가구 짓는다

군, LH와 업무 협약

구례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귀농·귀촌한 주민을 위한 보급자리를 짓는다. 9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 LH와 귀농·귀촌 주택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3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지어 귀농·귀촌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 후 입주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6월까지 4년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취득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설치,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례군과 LH는 최근 '귀농·귀촌 주택단지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관계자는 인구 유지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분양조건도 이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소멸해가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지 차원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게 돼 기쁘다”며 “사업 완공에

이르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예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 이외에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4억 들여 조성한 우산공원 생태숲 시민에 개방

광양시는 광양읍 우산공원 생태숲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광양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4억 원을 투입해 생태 공원을 조성했다. 생태숲은 4900㎡ 규모로 곤충 서식지와 빗물정원, 야생초화원 등 생태 복원공간과 생태놀이터, 생태탐방로 등 생태체험 공간이 들어섰다. 생태복원공간에는 기린초와 꼬리풀 등 초화류와

꽃맹강나무, 홍가시나무 등 3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됐다. 어린이를 위한 생태체험 공간을 마련해 인근에 있는 ‘꿈트리 놀이터’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심 내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아이들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매매가 : 48억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매매가 : 61억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매매가 : 32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지 : 22784㎡(6892평)
- 건축물 : 4290㎡(1298평) 지상6층
- 총객실수 : 50객실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비큐장
- 매매가 : 75억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